

완주군 '현미경복지' 앞장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급여 시행 결과 수급자 4092명에서 4873명으로 늘어

완주군은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4,873명(수급자 대비 20%)로 대폭 증가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에서는 2016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4,873명(군민 인구의 5.1%)의 생활안정을 위해 145억원을 투입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통학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미경복지'를 추진 중이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기피가구 보장결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수시 개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및 수급자 방문의 날 운영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신규 수급자를 477명 발굴했다. 박성일 군수는 "군민 한 사람도 소외 없는 현미경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447



완주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 주민과의 토론회를 하고 있다.

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대비 76천원 인상(1.73%)될 예정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 기준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

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맞춤형 급여는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 정세균 국회의장 만났다

유승열 군의회의장 등 동행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등 현안 사업 국비 반영 요청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의정실을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전)건립과 전주~김천 간 철도 및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덕유산 탐방배치센터 조성사업 등 무주군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이야기하며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는 태권전과 명인전이 태권도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라는 것을 강조, 기부금 모금실적(총 사업비 176억 중 기모금액 26억, 조건부 모금액 50억)이 저조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부족분 1백 억 중 70



황정수 무주군수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군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억을 국비로 충당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국비확보를 전제로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애가 타는 상황"이라며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에 있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에 필요한 국비가 201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의해 확보되거나 2017년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손님맞이를 위한 전통한(韓)문화 체험단지 조성과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건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태권브이랜드 조성, 무주 태권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건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농협 곳곳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진행

진안농협

농협 진안군 지부(지부장 장기요)는 21일 진안군 주천면 운일안반일암에서 관내 농·축협 직원 20여명과 함께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진안군을 방문하는 도시민에게 깨끗한 농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농촌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범농협 차원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진안군 농·축협 직원들은 운일안반일암 계곡에서

쓰레기줍기, 페비닐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장기요 지부장은 "자연보호 운동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농협

농협전주완주 시군지부(지부장 정형모)가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행사는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관광수요 유도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완주군 고산면 참포마을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완주군·농협전주완주 시군지부·고산면·고산농협·완주군 새마을회·대한노인회전북취업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포마을 주변 환경정화에 힘을 모았다.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행사는 농식품부의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농협이 여름철 휴가 기간 이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대식을 개최해 추진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가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중인 사업이다. 정형모 지부장은 "도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꼭 농촌으로 놀러와 완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즐거운 여

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서울 청소년 '우리는 친구'

부귀·마령면서 문화 교류

서울시-진안군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가 21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귀면과 마령면에서 진행된다.

지난 2014년 서울시와 진안군이 상생발전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이래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서울시 중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5개 학교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청소년들은 흥삼만들기, 원강정 마을탐방, 마이산 걷기, 풍동피우기, 물놀이 등 진안고유의 청정자연과 마이산, 특산물 등을 두루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첫회에 비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수행기관인 (사)마을엔사람과 진안군이 기획 단계부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구성, 사전답사, 안전관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도농교류 확대와 귀농귀촌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사)마을엔사람을 중심으로 디자인, 플래쉬몹, 별자리 관찰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하여 소통하고 나누는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의 청정자연과 마이산의 신비, 파스한 인심을 골고루 체험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적극적 지원으로 상호교류를 이어 가겠다"며 청소년 교류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원문정보공개 '우수'

장수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원문정보공개 우수사례(국민이 뽑은 생활에 유용한 결재문서 Best10)에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2016년 민집합용 반값 임대주택제공사업 추진계획'이 국민이 뽑은 생활에 유용한 결재문서 Best10에 선정됐다.

원문정보공개란,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에 대해 원문을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제도 홍보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진안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거주 외국인들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오는 23일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내빈과 다문화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평소 염망에 배운 이중 언어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색적인 개회선언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결혼이민자 3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농산물 상품권을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4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제1회 장수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21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최용득 장수군수와 유기훈 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 및 여성단체회원, 주민 등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색소폰 동호회와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와 양성평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시민운동 등 캠페인이 전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옥자 회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더욱더 단합된 모습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구성

진안군은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201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5개반, 45명의 물놀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휴일 비상근무제에 돌입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인 주천면 운일안반일암 등 10개소에는 안전관리요원, 119 시민수상구조대 등 24명을 선발·배치하여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공무원과 민간단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119이동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체험 중심의 교육과 TV, 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내 서울장학숙 학생들이 무주로

안성면 진도리서 봉사활동 24일까지 의료·법률상담

전북도 서울장학숙 거주 대학생과 장학숙 출신 총 동회 회원 등 50여 명이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진원마을, 오천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21일 무주군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진 봉사대원들은 오는 24일까지 무료 의료봉사(한방, 통증의학)를 비롯해 법률자문봉사와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가구 시설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녁시간에는 안성고등학교, 무주고등학교 학생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진도와 학습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봉사대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하성용 무주군 부군수는 "자랑스러운 전북의 아들, 딸들로 성장해 지역을 위해 마음과 시간, 노력, 재능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흐뭇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여러분의 헌적이 무주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

의 모습이 무주의 아이들에게 꿈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에서 펼쳐지는 이번 봉사활동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병준), 전북도서울장학숙 총 동회(회장 이충섭)와 제25대 자율회(회장 구민경)가 주관하고 재정무주군민회(회장 이근중)가 함께 하는 가운데 전북도 서울장학숙 봉사단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 애정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익산과 고창, 장수, 정읍, 진안, 순창 등지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전북도 서울장학숙 심형수 원장은 "도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전북인재들이 나눔을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는 바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타지에서 고생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향한 무주군민들의 응원이 더 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학당 개강... 고교생 대상 내달 12일까지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용득)은 여름방학을 맞아 21일 장수학당 개강식을 가졌다.

장수학당은 장수고, 산서고등학교 학생 1백여명이 참여하며 지역거점학교인 장수고등학교에서 오는 8월 12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장수고 소속 내부강사 14명과 비상대응학원 소속 외부강사 9명이 강사로 참여, 수업내용 Q&A 시간을 운영하고 영어·수학 과목 선택형 수업으로 운영해 학습 효과 향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매년 방학기간 학당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노력해왔다"며 "미래를 꿈꾸는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당 분위기를 조성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 내 학교들의 교육 및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진학 컨설팅' 사업으로 지역 거점 학교인 장수고등학교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1~3학년 총 2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진학 컨설팅과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 R&E(전공연구과정) 및 진로캠프 등의 학생 맞춤형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민 대토론회

진안군은 21일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 대토론회를 마령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마령면은 2015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 공모사업'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국비 56억, 지방비 24억)을 들여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지 기능 강화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대대적인 마령면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마령면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주민, 유관기관, 마령면의 초·중·고등학생,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 대 토론회'에서 도

출된 마령면의 미래상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재구성되어 추진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통해 마령면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지역경관을 확충·개선하고 주민 스스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며, 주민 문화·복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계획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주민들과 함께 계획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눈높이의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여 올 연말까지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중심지점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